

## “한국 동의 없이 日 집단 자위권 행사 불가”

### 한·일 국방장관회담서 원칙 합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 대화)에 참석, 일본과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와 관련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미국에서는 최근 오산기지에 탄저균이 배송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는 등 다양한 군사외교 성과를 거뒀다. ★관련기사 2면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대신과 4년4개월 만에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우리 측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대신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안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답했다.

또 한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대신이 최근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라며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 시에도) 우리의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한 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또는 미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호텔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과 4년4개월 만에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한민구 국방부 장관 과거사 관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 촉구

### 한·미·일 3국 장관 北 위협·도발에 공조·협력 강화 공감대

한 문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한미 간에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분명히 했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군사적 조치 등 각국의 관심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담에서 한 장관은 과거사에 관한 일본

의 전향적인 태도도 촉구했다.

한 장관은 “한·일 양국 간 국방 교류·협력의 기반은 잘 갖춰져 있으나 과거사 문제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나카타니 방위대신은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의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지난 협의와

정을 되돌아보면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했다.

또 한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대신의 한·일 국방장관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만 답했다.

한·일 회담에 이어 한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대신,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했다. 한·미·일 회담에서 3국 장관은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평가하고 이 지침이 제3국 주권 존중을 포함해 국제법을 준수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위협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3자 간 정보공유약정으로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간 상호이해와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어진 카터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 장관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수중사출시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일 간의 상그릴라 대화 일정을 포함해 베트남·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친 한 장관은 지난달 31일 밤 싱가포르를 떠나 1일 새벽 귀국했다.

싱가포르=이석종 기자 seokjong@dema.mil.kr

■ 편집=박재운 기자

### 월요기획

한반도 주변국 국방예산 분석 ·11면 / 생활 속 개인신용관리 방법 ·12면 / 주한미군 “탄저균 위험요소 완전 제거” ·14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11130-홍-24750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심의필 제120303-홍-26302

수술전

웨이브프론트 수술

S&B

##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

### BATH ISRAEL DEACONESS 메디컬센터 망막분야 연수 김준현원장님

## 해병대 출신 안과전문의 유승열 원장님이 수술하는 안과!

**라식·라섹수술 → 합리적인 비용**

레이저 라식·라섹

Z4라식·비주라식

“백내장 치료와 함께 노안교정을”

백내장

+

노안교정

백내장치료와 동시에 원거리+근거리(노안교정)를 함께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S&B안과 의원**

전화상담 02) 3416-1050 (수신자부담가능) S&B안과의 라식수술은 군인, 군무원, 군인가족도 가능합니다.

입구정역 3번출구(100M) S&B안과는 휴가, 외박시에도 **당일검사(51가지정밀검사지원)와 당일수술** 가능합니다.